조선의 지배층에게 북학파의 주장은 그저 비주류의 아우성. 이런 경향은 21세기 현재도 비슷. 대한민국의 주류라는 계층에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의견을ㅇ 수렴하거나 그드로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23)

일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부추기는 저변에는 광복 이후 식민사관을 씻어내고 민족적 자긍심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한국 민족 최고’라고 강조해온 민족사관이 일조하고 있다. 열등감을 떨쳐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는 덜하고 있다. (29)

조선은 코발트 수입가격이 금값이던 15세기부터 법적으로 청화백자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코발트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는 영조와 정조 때도 청화백자 등 백자의 몸통 위에 그림을 그린 자기를 금지. 일종의 사치금지법이다… 조선 후기 즉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 도자기 유행은 청화백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색으로 꽃이나 새 등 도안을 채색한 채색도자기로 진화.. 18세기에는 채색도자기 원조인 중국조차도 유럽에 도자기를 수출하기 위해 일본식 채색도자기를 모방해야 할 정도로 유럽에서 인기. (57) 전세계에 청화백자가 유행이던 17세기 경제적 궁핍으로 철확백자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은, 세계 도자기의 유행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으며 그 뒤로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 도자기 시장 주도권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청화백자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일본의 채색도자기로 넘어갔다. (67)

자포니즘(Japonism)이 유럽에서 산불 번지듯이 맹렬하게 대중적으로 유행한 시점은 19세기 중엽.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에서 도자기 칠기 가구 등을 수출한 것이 바탕이 됐다. 자포니즘의 본격화는 일본의 다색 목판화인 우키요에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시작됐따. 1856년부터 파리의 콜렉터들은 열정적으로 일본의 우키요에를 수집, 일본문화의 유행을 만들었다… (86)..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일본 여인>을 그린 모네는 물론, 로트렉,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 인상파 화가들과 <해바라기>의 고흐와 고갱 등 후기 인상파 화가, 아르누보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클림트, 현대미술 아버지 피카소, 마티스와 같은 야수파 등도 일본의 우키요에의 영향권에 있었다.. (87)

한국 문화에 무지한 것은 로울랜드가 아니었따. 나 같은 한국인이었따. 세계

이에야스는 동남아에도 눈을 돌려 시암(태국)제국과 인도차이나의 안남, 캄보디아의 파타니 등과도 교역했다.. 놀랍게도 이에야스는 태평양 건너 멕시코와 무역도 희망했따. 교역 시도했다는 점보다 17세기 초 이에야스가 멕시코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따는 사실이 더 신기하다. 17세기 초 조선 왕실과 사대부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다. 1(125)  
  
- 조선 초기만 해도 농민 등 양인들도 과거제도를 통해 신분상승이 가능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 노비는 대를 이어 노비인줄 알았더니 중국 법은 범죄 때문에 노예가 되었더라도 그 자식대에는 사면되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비가 세습되지 않았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 18세기 초 옹정제가 세습 천민집단을 거의 해방시켰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 일본은 이미 900년대에 노비제를 폐지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 유독 조선의 양반들은 신성한 노동을 양인과 노비에게 맡긴채 국가를 경영한다는 이유로 세금도 내지 않고 군역도 기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정반대로 갔으며  
  
- 납세의 유일한 기둥인 양인층이 노비로 몰락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조선 왕실과 대립, 어떻게든 노비를 늘리는데만 관심있어  
  
- 관리와 양반 수발 들 일이 많았던 한성의 경우, 양반 16%, 양인 30%, 노비 53% 의 기형적 인구 구조로서  
  
-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아니 전세계 역사를 봐도 가장 가혹한 노예제를 영위해온게 조선이었다는 것을  
  
- 후대의 중산층 역시 1998년 외환위기 거치면서 상류층 진입 대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듯.. 신분의 벽이 가장 두텁고, 예나 지금이나 지배층이 가장 뻔뻔하고 이기적인 그 역사를  
  
[문소영](https://www.facebook.com/soyoung.moon.399) 님의 <못난 조선> 을 보면서 깨우치는 중이어요..역사에 무식한 탓에 이 모든 사실이 신선하네요.   
  
<노예 12년> 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세금 내고 병역 의무 질 양인이 부족하니 그제야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무튼 이런 역사를 제대로 몰랐으니 오늘날의 신분제에도 그냥 그러려니 해온게 아닌가 뜨끔하기도 하고.. 아는게 힘이어요. 이 책 넘 잼나요..

16세기 이전 조선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생산물. 첫째는 도자기. 둘째는 면화의 수확과 면직물 생산. 셋째..는 인삼. ..일본은 이를 차근차근 국산화해 대체. 17~18세기는 일본의 기회이자 조선의 위기였다…

도자기 생산은 요즘의 반도체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 우리는 고려시대 초부터 도자기를 만들었따. 9세기 말 10세기 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을 끌고 가 섭씨 1300도의 고온에서 구워내야 하는 자기 생산의 비밀을 깨달았다. 도자기에 관한 한 조선이 일본보다 무려 700년 앞선 선진국이었다..

8데 쇼군 요시무네는 <동의보감>에 나온 약재 1400여종을 조사. 인삼의 생초를 얻어서 일본에서 재배하고자..

청나라가 대외개방을 한 결과가 영국과의 1, 2차 아편전쟁(1840년, 18856년)과 서양의 반식민지로의 전락으로 오해될 수도 있따.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닥친 위기에 대해 청나라 왕실이 무감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 서양을 야만의 나라로 바라본 중화주의적 태도를 가지고는 새롭게 발생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단순히 대외개방의 결과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이처럼

14세기까기 고려는 국제적 국가로서 흠잡을 것이 없었따. 그러나 조선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조용한 은둔의 나라’가 됐다.. 192

조선 후기 인구가 크게 불어나지 못한 또다른 이유는 전염병. 한성 인구는 조선말에 이르러도 20만~30만을 넘지 못했다.. 대도시 형성 및 발달의 기본인 상하수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 설립된 일본의 건축회사 콘고구미. 창업자는 백제에서 건너간 콘고 시게미쓰. 한반도인. 그와 그 동료들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시텐노지(사천왕사)를 593년 건립.. .일본 문화 원조가 한반도에서? 무려 15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일본 사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2, 3위도 보유. 708년 창업한 온천 여관업의 케이운칸. 718년 창업한 여관업 호시. ..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은 5만 개이고, 200년 이상 된 기업도 3146개나 된다.

조선 후기 일보은 선진국이었다..

21세기에도 일본은 책을 많이 읽는 민족으로 소개되지만, 17세기에도 일본은 조선인보다 더 많이 책을 읽은 것 같다. 고려 팔만대장경을 얻기 위해 조선에 매달렸던 일보은 17세기 말 출판의 대중화. 전국시대 거쳐 정치, 사회가 안정된 에도시대가 열리자. 에도에 약 6000명이 넘는 출판업자. 17세기 말 교토에는 1만 점이 넘는 서적이 출판됐다..  
  
조선 후기 왕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영조와 정조는 공자, 맹자, 주희로 이어지는 중국 고전을 내세워 왕권 강화하고자 했다.. 정조 때 한문의 문장체를 순수하고 바른 문체로 돌리려는 ‘문체반정’.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참신한 문장이나 청나라 문물을 소개한 박지원의 <호질>과 같은 소품 소설체를 잡문체라고 규정하고 탄압.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을 꾸짖고 그의 저서를 금지서적으로 채택… 계몽군주로 알려진 정조는 조선 후기 새롭게 싹트던 문화적 경향을 억압하고 언로를 봉쇄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시도한 군주. 정조가 설치한 도서관 규장각 역시 학문을 사랑하고 중흥시키려는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문체반정을 강화할 수 있는 책만을 골라놓은 도서관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왕실과 사대부는 유교의 발생지인 중국보다 더 유교적 관행에 집착하고, 성리학을 예학으로까지 발전시켜나가는 ‘순정주의’. 그러나 주자학은 명나라 말기 양명학이 등장하면서 세력이 약화됐고, 일본도 16세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 조선은 이미 통치철학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주자학으로 18세기를 재무장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세기 개항을 타고 들어온 제국주의적 음모를 읽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무력해졌다.. (334)

조선은 17세기 초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버리지 않고 청나라를 거부하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두 차례나 전쟁을 해야만 했다.. 이후 조선은 겉으로는 사대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나라를 거부한ㄷ. 17세기 중엽 급변하는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했다.. 1644년 명나라가 완전히 망한 뒤에도 명나라를 사대하는 기이한 현상. 명나라에 대한 미련은 숙종을 거쳐 영조, 정조때까지. 학파와 붕당을 막론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치행위. 송시열과 노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왕이 직접 나서서 명나라 황제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주도해 정국 운영을 위한 정치수단을 활용. 흔히 이승만 동상 건립이나 박정희기념관 설립 등을 두고 국내 정치세력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것과 같은 맥락.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다. 기념 사업회를 발족시켜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약 50년 동안 세차례 전쟁으로 민심이 왕실과 지배층을 많이 떠났다.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조선 지배층의 무능이 아니라 야만적 오랑캐 침략과 약탈이었음을 강조해야 하지 않았을까? 국정운영을 위해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150여 년 일본은 물론 청나라 문물을 거부하는 것은 조선 지배층으로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선택…   
  
더 황당한 것은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등 ‘150년 황금기’의 청나라를 거부해놓고, 1차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명백히 쇠락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 청나라를 받아들였다는 점. 중화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던 그 순간에 조선은 낡은 청나라의 질서를 붙들고 매달렸다… (청나라가 흔들리자 세도정치로 도끼 썩는 줄 몰랐던 조선 지배층은 의지할 곳이 청나라 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354 355

광해군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배척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조반정의 승리자들은 이후 명분과 의리, 착시와 자기암시로 점철됐던 조선 후기의 사대주의를 만들었다. 그 탓에 제국주의가 강화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격변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355)

조선은 유학을 국교로 개국했지만 초기만 해도 주자학 일변도는 아니었다. 비교적 탄력적 학문 풍토. 공리공론에 빠지기 쉬운 경학에만 머물지 않고 실학을 겸수하는 기풍이 살아있었고 조선 후기에 비해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사림파가 정계의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경학과 실학으로 분류됐고, 과학, 의학 등 실학을 잡학으로 칭하고, 실학에 종사하는 이를 잡류라 경멸했다. 겨학에 편중하고 실학을 경시하는 조선후기 지식인은 파벌끼리 공리공론을 펴고 자기주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371

당쟁이 격화되면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은 사문난적으로 지목됐다. 다른 해석은 곧바로 이단적 행위였고, 조정에 발을 붙일 수 없었다. .. 주류가 비주류도 됐다가, 비주류가 또 주류도 되는 순환구조가 아니라 주류는 dudgdnjsgks 주류가, 비쥬류는 몇 대에 걸쳐 더 이상 벼슬에 나갈 수 없는 ‘폐족’으로 분류.. 박지원과 정약용은 정권 중심 세력에서 소되되었다.. 정약용은 19년이나 강진에서 유배..<목민심서> 등 주옥 같은 저서로 오늘날까지 한국인을 열광시키지만 자신이 살았던 18세기 말 강진 지역의 양반들에게조차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선의 치열한 당쟁은 출세를 꿈꾸는 사림과 예비유학자들을 줄 세우고, 학문적,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주자학 외 다른 학문의 기운이 태동하거나 배태할 수 엇ㅂ는 이유.. 여기에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줄 세우기가 심화됐다. 세도정치가로서 정권 유지가 중요했을 뿐 국가쇄신등은 정책중요도에서 밀려났다.

과거 제도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골라쓴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과거시험 과목 중심으로 공부에 몰두하다보니 다른 학문을 배제하고 주자학 일변도로 흐르는 문제. 과거를 포기한 재야 지식인이나 유배간 선비들만이 유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 유배문학과 유배학문이 나온 이유. ..특정한 소수 가문에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

조선 초기의 유연한 신분제가 후기에 양반과 비양반으로 고착화. 양반의 특권화는 연산군 때부터. 양민이 몰락했고

중국 옹정제는 고전 학문에 입각해 세속에서 벗어난 정론을 내세우는 관료보다 분골쇄신하고 실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관료를 높이 평가..